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2년 12월

전망과 정책과제

| | |
|-----------------------|----|
| 제1장 국내경제동향 | 5 |
|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 37 |
| 제3장 국내경제전망 | 49 |
|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61 |

부록

| | |
|--------------|----|
| 주요경제통계 | 67 |
|--------------|----|

한국경제연구원

편집위원

| | |
|--------|-----|
| 선임연구위원 | 허찬국 |
| | 이인실 |
| 연구위원 | 배상근 |
| 선임연구위원 | 김창배 |
| | 서준석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2. 국제유가
3. 국제금리 및 환율

제3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전망의 위험요인
5. 금융부문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2. 재정정책 역할강화를 위한 경제부처 재편 바람직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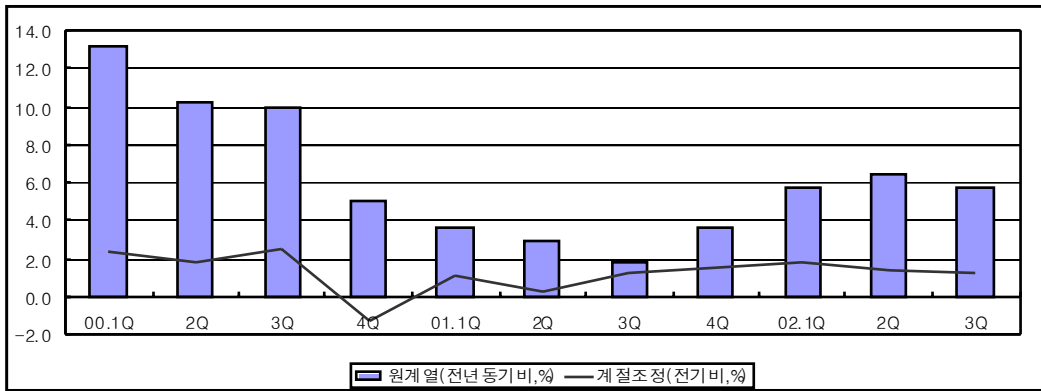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생산 : 견조한 증가세 지속

- 2002년 3/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소비, 건설 등 내수부문의 둔화로 2/4분기(6.4%)에 비해 소폭 낮은 5.8%를 보였으나 태풍 등 계절적인 요인과 지난해 높은 내수증가세에 따른 상대적 효과를 감안할 때 전반적인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4분기중 계절변동조정(S.A) 실질GDP는 전기대비 1.3% 증가

<그림 1> 실질 GDP 추이



- 3/4분기중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반전된 데에는 지난해 이들 부문의 큰 폭 증가세에 따른 상대적 반사효과가 일부 작용

* 민간소비(2/4분기→3/4분기) : 2001년(4.1% → 4.8%) , 2002년(8.4% →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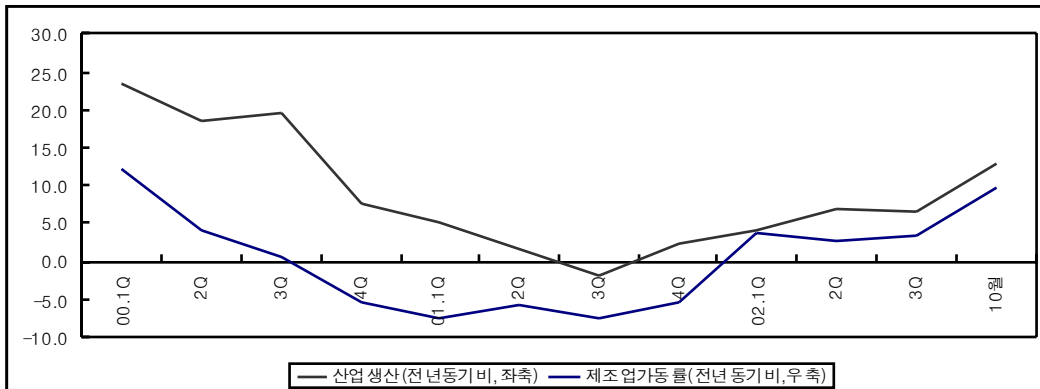
* 건설투자(2/4분기→3/4분기) : 2001년(1.1% → 8.2%) , 2002년(3.9% → -3.8%)

- 태풍, 추석 등의 영향으로 낮아졌던 산업생산증가율이 10월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제조업가동률도 다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 2002년 2/4분기 6.8 ⇒ 3/4분기 6.7 ⇒ 10월 12.7

• 제조업가동률(전년동기비, %) : 2002년 2/4분기 2.6 ⇒ 3/4분기 3.5 ⇒ 10월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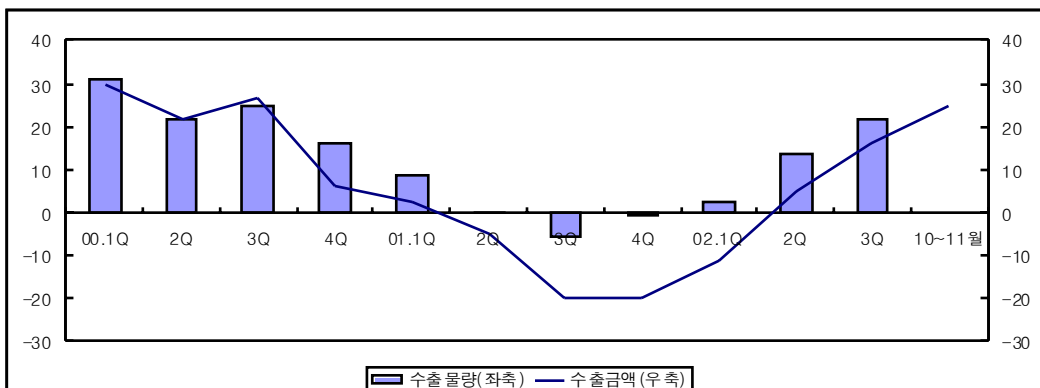
<그림 2> 산업생산과 제조업가동률 추이



■ 내수둔화에도 불구하고 생산활동이 건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수출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

- 수출물량(원화) : 2002년 1Q 2.5%⇒ 2Q 13.5%⇒ 3Q 21.7%
- 수출금액(달러) : 2002년 1Q -11.1% ⇒ 2Q 5.0%⇒ 3Q 16.4%⇒ 10~11월 24.5%

<그림 3> 수출물량과 수출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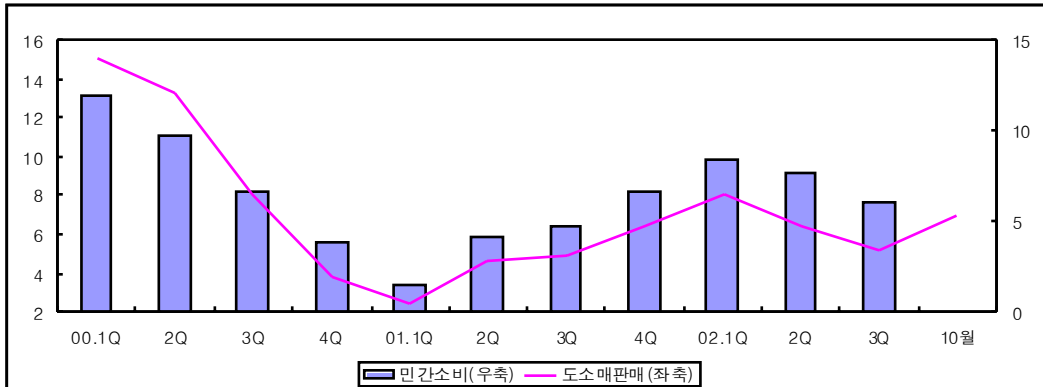
소비: 2/4분기 이후 증가세 둔화

■ 소비: 2/4분기부터 증가세 둔화

- 민간소비(국민계정) : 2002년 1Q 8.4% ⇒ 2Q 7.6% ⇒ 3Q 6.1%
- 도·소매판매 : 2002년 1Q 8.0% ⇒ 2Q 6.4% ⇒ 3Q 5.1% ⇒ 10월 7.0%*

* 지난해 10월 증가율(4.8%)이 낮았던 데 대한 상대적 반등

<그림 4> 소비관련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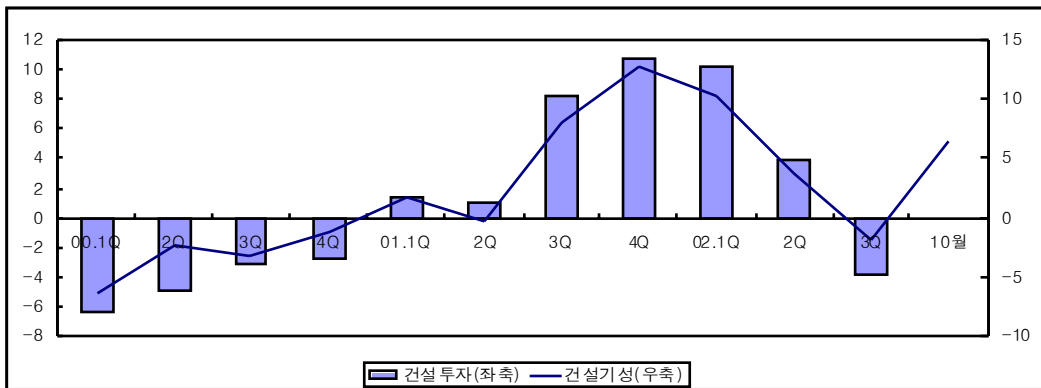
건설투자 : 2/4분기 이후 둔화세 지속

- 3/4분기중 건설투자는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10월중에도 기술적 반등효과로 소폭 증가세에 그침에 따라 대체적으로 둔화추세를 보임.

- 건설투자 : 2002년 1Q 10.1%⇒ 2Q 3.9%⇒ 3Q -3.8%
- 건설기성 : 2002년 1Q 10.3%⇒ 2Q 3.8%⇒ 3Q -1.8% ⇒ 10월 6.4%*

* 지난해 같은 기간의 낮은 증가율(6.3%)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

<그림 5> 건설관련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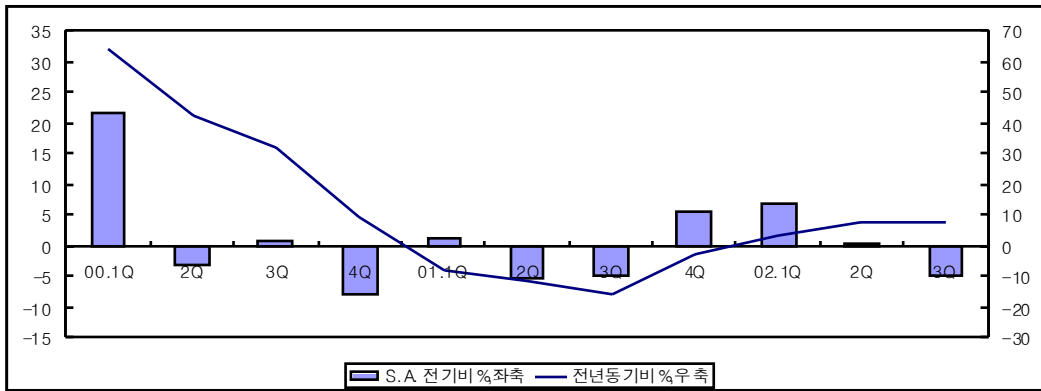


설비투자 : 점진적인 회복조짐

- 3/4분기중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절변동조정 전기비 증가율은 4.7% 감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

- 전년동기비 : 2001년 4Q -3.1%⇒ 2002년 1Q 3.2%⇒ 2Q 7.4%⇒ 3Q 7.7%
- 전기비(SA) : 2001년 4Q 5.7% ⇒ 2002년 1Q 6.9%⇒ 2Q 0.2%⇒ 3Q -4.7%

<그림 6>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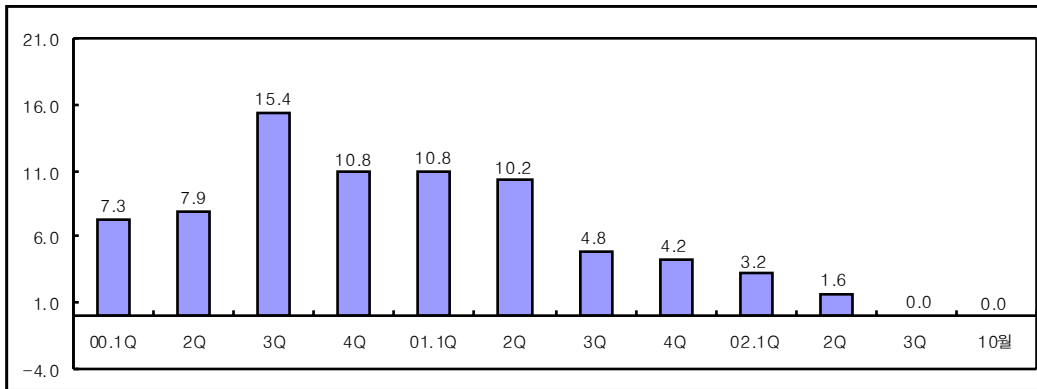
■ 그러나 최근 설비투자추계 증가율이 완만하게 확대되고 국내기계수주 및 기계류 수입액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설비투자는 점차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추계(전년동기비, %) : 2002년 2/4분기 -0.2 ⇒ 3/4분기 0.1 ⇒ 10월 1.4
- 국내기계수주(전년동기비, %) : 2002년 2/4분기 9.3 ⇒ 3/4분기 20.7 ⇒ 10월 31.1
- 기계류수입액(전년동기비, %) : 2002년 2/4분기 26.9 ⇒ 3/4분기 24.3 ⇒ 10월 24.9

■ 한편 그동안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조업생산능력지수*가 지난해 3월 이후 전반적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정체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 이는 향후 설비투자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제조업생산능력지수 : 사업체의 주어진 조건(설비, 노동력, 사내지정조업시간 및 일수, 설비효율 등)하에서 정상 가동시 최대 생산량

<그림 7>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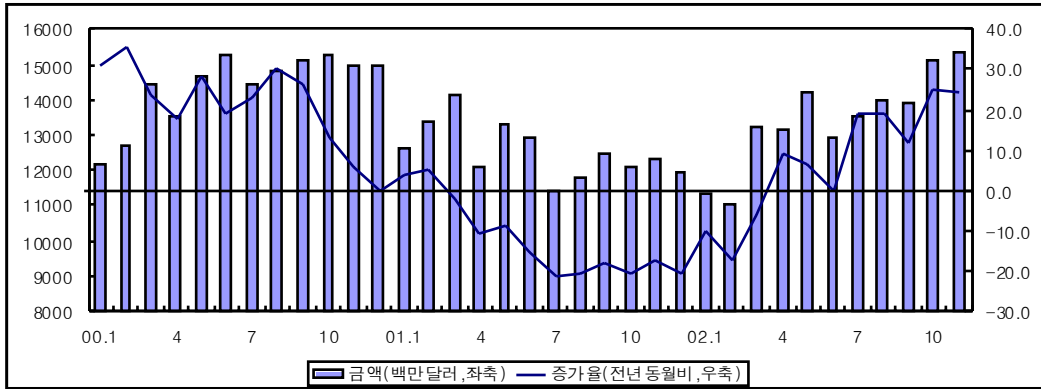


2. 대외거래부문

수출 : 2/4분기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

- 수출은 2/4분기 증가세(5.0%)로 반전된 이후 증가세가 3/4분기 16.4%, 10~11월 약 25%로 크게 확대
- 7월 이후 수출은 연속 5개월간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0월 이후의 수출은 최고 호조세를 보였던 2000년 수준을 회복
- 1~11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비 6.7% 증가한 1,477.9억 달러 기록

<그림 8> 수출금액과 증가율 추이



■ 주요 품목별로는

-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수출이 중국 CDMA시장의 확대와 주종수출품목의 고가화에 힘입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음.
- 지난해 급감했던 반도체는 D램 주력제품의 구성이 DDR중심으로 고도화되고 DDR 가격이 점차 상승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DDR비중(%) : 2002년 1/4분기 19.9 → 3/4분기 32.3

* DDR128M(\$/개) : 2002년 2/4분기 2.71 → 3/4분기 3.41 → 10월 3.64

- 자동차는 수출차종의 고가화와 국내특소세 환원에 따른 업계의 수출증대 노력으로 10월 이후 큰 폭 증가
- 컴퓨터와 가전제품은 연말연시를 앞둔 계절적 수요와 디지털 제품수요 증가로 호조세

- 그외 철강, 화공품, 기계류 등의 업계의 마케팅 강화와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건조한 증가세 지속

<표 1>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 2001년 | | | | | 2002년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 중화학공업제품 | 3.7 | -12.3 | -21.3 | -18.7 | -12.6 | -7.5 | 9.9 | 22.0 | 28.0 |
| 화공품 | 0.7 | -11.7 | -12.2 | -19.4 | -10.9 | -8.0 | 6.2 | 12.8 | 32.7 |
| 철강제품 | -3.1 | -14.3 | -13.1 | -16.0 | -11.7 | -17.5 | 0.3 | 9.7 | 32.0 |
| 기계류 | 20.8 | -5.7 | -10.0 | -12.7 | -3.0 | -13.2 | 5.1 | 23.1 | 42.2 |
| 전기전자제품 | -5.1 | -25.4 | -35.9 | -25.5 | -23.7 | -4.2 | 21.0 | 31.0 | 32.7 |
| 가전제품 | 3.1 | -10.8 | -8.2 | -2.9 | -4.7 | 2.6 | 19.0 | 15.7 | 25.3 |
| 정보통신기기 | -3.3 | -9.2 | -9.7 | -2.9 | -6.2 | 10.7 | 31.8 | 27.0 | 23.3 |
| 반도체 | -10.3 | -43.0 | -63.9 | -54.5 | -45.2 | -23.6 | 9.6 | 53.6 | 62.5 |
| 승용자동차 | 1.9 | 18.5 | 4.4 | -8.3 | 3.1 | 15.3 | 2.3 | 8.8 | 37.7 |
| 선박 | 76.2 | 17.1 | 3.9 | -12.7 | 17.9 | -27.7 | 8.3 | 45.1 | -28.6 |
| 경공업제품 | -6.2 | -14.2 | -13.2 | -18.2 | -13.1 | -16.4 | -3.8 | 1.7 | 18.6 |

-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큰 폭의 증가세
 - 특히 대중국 수출이 2/4분기 17.8% 증가한데 이어 3/4분기 35.8%, 10월과 11월에는 50%를 넘는 급신장세를 보임.
 - 그외 미국, EU, 일본, 아세안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세도 크게 높아지고 있음.

<표 2>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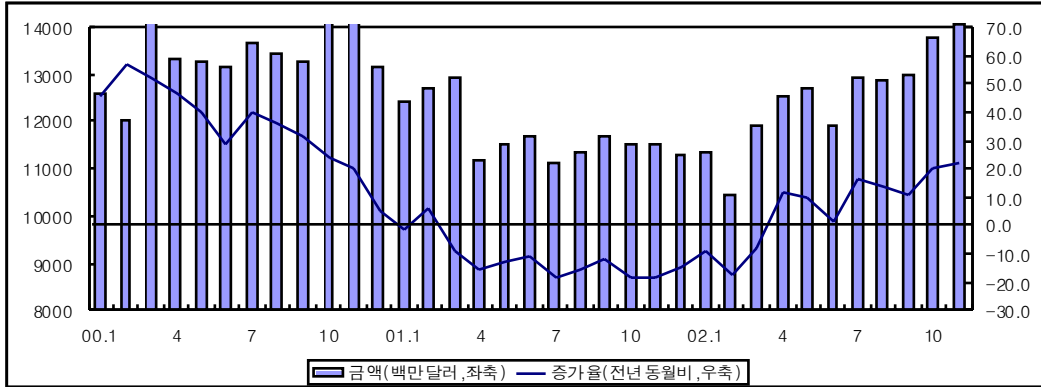
| | 2001년 | | | | | 2002년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11.1~20 |
| 미국 | -0.6 | -16.2 | -21.7 | -26.0 | -17.0 | -6.8 | 4.8 | 4.5 | 20.4 | 9.5 |
| EU | 3.5 | -16.4 | -18.2 | -29.9 | -16.2 | -10.6 | 1.9 | 15.8 | 20.4 | 39.9 |
| 일본 | -1.1 | -13.3 | -28.9 | -31.8 | -19.3 | -30.8 | -13.5 | 7.2 | 14.4 | 13.7 |
| 아세안 | -9.1 | -19.6 | -23.5 | -20.2 | -18.3 | -3.2 | 16.7 | 17.3 | 25.6 | 22.7 |
| 중국 | 10.5 | 2.6 | -7.1 | -9.1 | -1.4 | 4.7 | 17.8 | 35.8 | 66.9 | 53.8 |
| 중동 | 6.4 | -7.7 | -13.0 | -7.5 | -5.9 | -8.0 | 6.0 | 10.8 | 31.0 | 11.8 |
| 중남미 | 29.8 | 9.4 | -15.9 | -6.2 | 3.9 | -30.8 | -7.8 | 14.6 | -1.2 | 88.3 |

수입 : 큰 폭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수출증가율을 하회

- 수입은 수출증가와 함께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 수출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수입은 7월 이후 연속 5개월간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1월 실적은 금액과 증가율상으로 2000년 10월(141.6억 달러, 20.7%)이후 최고 수준
- 1~11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비 6.0% 증가한 1,375.8억 달러 기록
- 그러나 하반기 이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하회하는 모습
- * 수입(전년동기비%) : -2.3(상반)→ 13.5(3/4)→ 20.1(10월)→ 22.1(11월)

* 수출(전년동기비%) : -3.3(상반)→ 16.4(3/4)→ 25.0(10월)→ 24.1(11월)

<그림 9> 수입금액과 증가율 추이



■ 용도별 수입동향

- 원자재수입은 생산 및 수출활동 호조 등이 반영되면서 증가세 크게 확대
- 자본재수입은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4분기이후 두자리수 증가세를 지속
- 소비재수입은 곡류, 육류 등 농림수산물과 승용차, 캠코더 등 고가 수입품의 수입 증가가 지속되면서 20%대의 증가세를 지속

<표 3> 용도별 수입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 2001년 | | | | | 2002년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11월(추정) |
| 원자재 | 1.3 | -5.4 | -10.3 | -20.3 | -8.9 | -14.0 | 0.5 | 6.6 | 17.8 | 18%내외 |
| 자본재 | -7.5 | -25.1 | -25.7 | -19.8 | -19.7 | -15.6 | 13.6 | 19.5 | 20.8 | 23%내외 |
| 소비재 | 5.7 | -2.5 | 1.7 | 9.0 | 3.5 | 17.6 | 22.2 | 24.5 | 26.0 | 27%내외 |

자료 : 산업자원부

국제수지 : 상품수지 흑자확대 불구, 서비스수지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 축소

- 3/4분기까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축소추세를 보이던 경상수지 흑자가 10월중에는 수출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인 약 14억 달러의 흑자를 보임. 이에 따라 1~10월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45억 달러로 증가
 - 상품수지는 7월 이후 흑자규모가 확대추세로 반전하면서 1~10월중 127.2억 달러의 흑자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흑자규모(118.8억 달러)를 상회
 - 반면 서비스수지는 1~10월중 60.6억 달러의 적자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자 규모(24.6억 달러)에 비해 약 36억 달러가 확대. 1~10월중 적자규모의 약 50%(30.5억 달러)는 여행수지의 악화에 기인
- 자본수지는 외국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의 차입금 상환과 내국인 해외투자의 순유출의 영향으로 9~10월중 적자

<표 4>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단위 : 억 달러

| | 2001년 | | | | | 2002년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10월 | 1~10월 |
| 경상수지 | 27.7 | 37.6 | 10.3 | 10.5 | 86.2 | 17.1 | 17.9 | 5.8 | 13.8 | 54.5 |
| 상품수지 | 32.6 | 50.4 | 29.2 | 21.7 | 133.9 | 32.6 | 43.7 | 29.9 | 20.9 | 127.1 |
| 서비스수지 | -2.1 | -6.4 | -14.3 | -12.4 | -35.3 | -14.3 | -15.0 | -25.2 | -6.0 | -60.6 |
| 소득수지 | -3.8 | -5.3 | -1.3 | 1.6 | -8.9 | -0.2 | -7.5 | 6.6 | -1.0 | -2.2 |
| 경상이전수지 | 1.1 | -1.1 | -3.3 | -0.4 | -3.6 | -1.0 | -3.3 | -5.4 | 0.0 | -9.7 |
| 자본수지 | -41.9 | -30.3 | 13.0 | 23.4 | -35.8 | 9.1 | -2.0 | 24.8 | -14.0 | 1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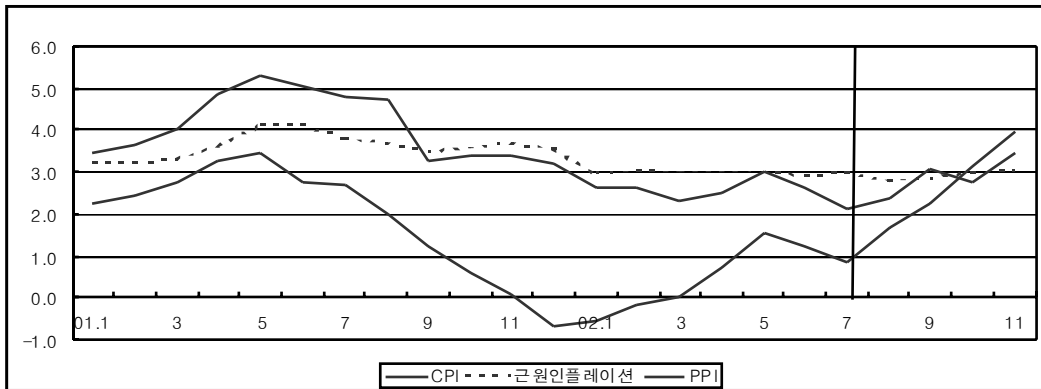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3.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 8월 이후 상승세 확대

- 물가가 8월 이후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3%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2.4(8월)→ 3.1(9월)→ 2.8(10월)→ 3.5(11월)
 - 근원인플레이션(전년동월비%) : 2.8(8월)→ 2.9(9월)→ 3.0(10월)→ 3.1(11월)
 - 생산자물가(전년동월비%) : 1.6(8월)→ 2.2(9월)→ 3.1(10월)→ 4.0(11월)

<그림 10>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 물가 오름세가 확대된 것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7월 중순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의 영향
 - 원유도입단가(\$/BBL) : 22.27(상반기) → 25.57(3/4분기) → 27.38(10~11월)
 - 수입물가(전년동월비 %) : -5.1(8월) → -2.2(9월) → 3.3(10월) → 3.5(11월)

- 한편 태풍, 추석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특히 11월중에는 지난해 11월의 물가상승률이 하락한데 따른 반사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8월과 9월중에는 태풍피해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월비증가율에 대한 농·축·수산물제품의 기여도가 크게 높았음.

<표 5> 소비자물가 전월비 증가율의 부문별 기여도(%p)

| | 총지수 | 상품 | 농·축·수산물 | 공업제품 | 서비스 |
|-------|-------|-------|---------|-------|------|
| '02 7 | -0.28 | -0.29 | -0.25 | -0.10 | 0.05 |
| 8 | 0.66 | 0.51 | 0.51 | 0.03 | 0.10 |
| 9 | 0.56 | 0.55 | 0.42 | 0.13 | 0.05 |
| 10 | -0.28 | -0.42 | -0.73 | 0.32 | 0.10 |
| 11 | 0.09 | -0.04 | -0.15 | 0.10 | 0.10 |

- 11월중 물가상승률이 급등한 것은 비교시점인 지난해 11월의 물가상승률이 크게 하락한 데도 기인

<표 6> 2001년 11월 물가지수와 전월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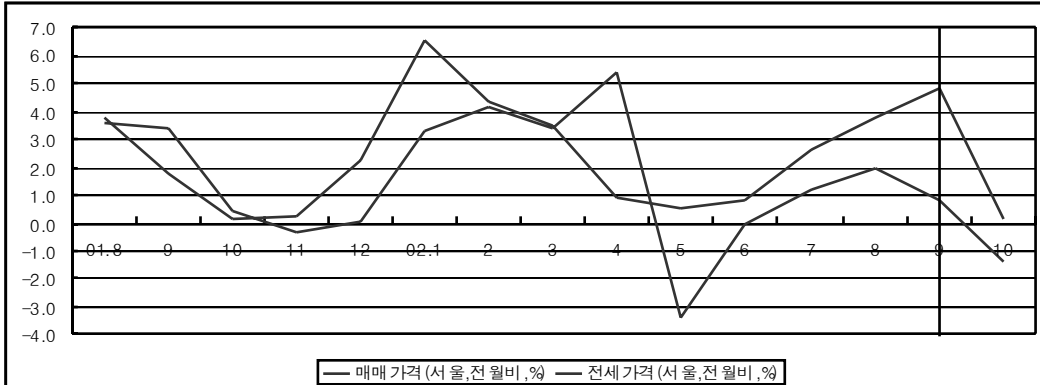
| | 2001년 | | |
|-------|---------|---------|--------------|
| | 10월(지수) | 11월(지수) | 11월(전월비 증가율) |
| 소비자물가 | 104.8 | 104.2 | -0.6 |
| 생산자물가 | 122.0 | 121.5 | -0.4 |

부동산가격 : 9월 이후 상승세 크게 둔화

-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던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10월 이후 크게 둔화
- 아파트매매가격은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과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10월 이후 안정세

- 아파트전세가격은 9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10월에는 하락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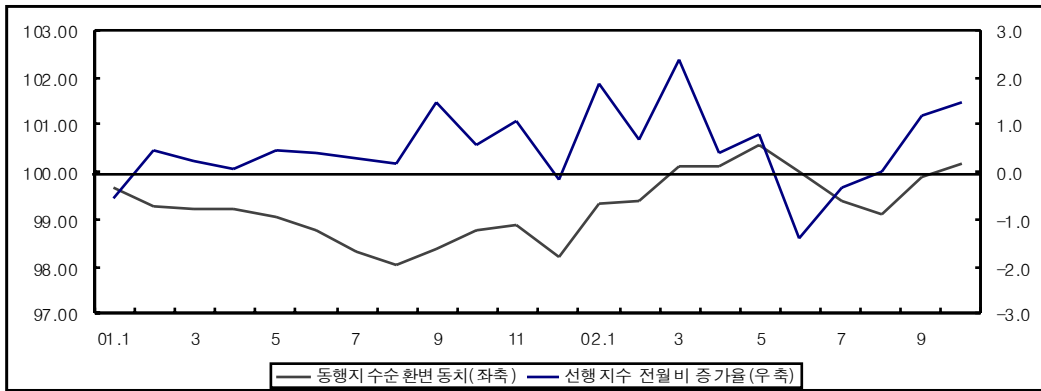
<그림 11> 아파트(서울지역)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추이



현 경기의 종합 판단 :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패턴을 유지

-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산업생산이 10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8월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를 시사해 주는 선행지수의 전월비 증가율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

<그림 12> 경기종합지수



- 금년 8월까지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3%대 초반의 제한적인 상승세에 그치고 있음.
 - 최근의 물가 오름세가 수해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원화환율의 하락세, 국제유가 상승세와 부동산가격의 급등세 등 점차 진정되고 있어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4. 통화 · 금융부문

하락세를 보이던 통화지표 11월 들어 소폭 상승

- 금융시장내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상태이나 경기둔화와 기업들의 투자위축, 가계 대출의 부실화 우려 등으로 경제 불투명성이 높은데다 물가안정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통화당국은 콜금리목표를 5월 인상 이후 계속 동결
 - 대외적으로도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국제유가의 불안한 움직임, 선진국의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
- M3증가율은 2/4분기 중 13.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10월중에는 12.5%로 증가세 둔화.
- 3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던 M2 및 MCT 증가율은 11월중에는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여 각각 12.6%, 11.1%를 기록
 - 11월중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지표증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정부 재정지출이 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된 데 기인

<표 7> 주요 통화지표 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 | | | | | | |
|--------------------|-------|-------|-------|-------|------|------|------|------|------|------|------|------|------|------|
| | 연간 | 연간 | 연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본원통화 | 12.1 | 20.2 | 11.5 | 7.1 | 20.3 | 17.6 | 17.0 | 17.8 | 16.3 | 14.9 | 15.1 | 15.3 | 9.7 | 12.7 |
| M2 | 27.9 | 30.2 | 15.7 | 12.6 | 14.9 | 16.1 | 15.7 | 14.5 | 13.8 | 12.3 | 11.8 | 12.1 | 12.1 | 12.6 |
| MCT | 7.7 | 14.4 | 10.1 | 11.9 | 12.8 | 13.3 | 13.5 | 12.8 | 12.7 | 11.1 | 10.7 | 11.0 | 10.9 | 11.1 |
| MCT+ ¹⁾ | 5.3 | 15.1 | 12.6 | 12.4 | 13.9 | 14.4 | 14.8 | 14.1 | 14.0 | 12.7 | 12.2 | 12.7 | 12.8 | 13.8 |
| M3 | 11.3 | 5.6 | 9.6 | 11.6 | 11.9 | 12.9 | 13.7 | 13.7 | 13.5 | 13.0 | 12.4 | 12.4 | 12.5 | - |

주 : 1) MCT+ = 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자료 : 한국은행

자금사정 : 가계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11월 들어 증가폭 둔화

- 자금운용난을 겪고 있는 은행권의 대출경쟁으로 하반기 들어서도 기업대출의 증가세는 계속되었으나 11월 들어 그 증가폭이 현저히 둔화
- 10월중에는 대기업들이 3/4분기 말 부채비율관리를 위해 일시상환했던 대출을 재대출 하였으나 11월 들어서는 양호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시 자금수요가 줄어든 데 기인
- 중소기업 대출도 10월중 단기운영자금 수요 확대로 4.8조원 증가하였으나 11월 들어 증가폭이 2.9조원으로 둔화되었음.
- 가계대출은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억제정책의 시행으로 10월 6.1조원 증가에서 11

월중 2.1조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

- 이는 10월 들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계절적 이사비수기에 들어섬에 따라 가계대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어든데 기인

<표 8> 은행대출(신탁포함)추이

단위 : 증감액, 억원

| | 2001 | | | | 2002년 |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10월 | 11월 |
| 은행대출 | 37,808 | 153,873 | 153,601 | 145,191 | 308,206 | 190,749 | 244,513 | 120,628 | 49,446 |
| 대기업대출 | 21,042 | -23,902 | -4,314 | -26,820 | 34,494 | -18,153 | -2,777 | 8,864 | 2,252 |
| 중소기업대출 | 11,711 | 61,385 | 67,241 | 24,152 | 92,678 | 134,646 | 85,143 | 48,772 | 28,733 |
| 가계대출 | 38,295 | 122,731 | 117,376 | 169,866 | 174,359 | 176,337 | 160,117 | 61,221 | 20,763 |

주 : 1) 부실채권정리,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CLO포함.

자 료 : 한국은행

- 회사채발행은 금년 내내 이어졌던 순상환 기초에서 벗어나 11월에는 1.5조원의 순발행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를 추세변화로 보기는 이룸.
 - 11월중 기업들은 금리하락에 따라 저금리 장기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사채발행을 대폭 늘려 단기부채 상황에 사용하고 있음.
- CP발행은 기업들의 반기 및 분기별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함에 따라 6월과 9월중에는 순상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순발행 기초로 전환
 - 10월과 11월중 CP발행은 각각 2.2조원, 0.8조원 증가

<표 9>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단위 : 기간중증감, 억원

| | 2001년 | 2002년 | | | | |
|-------------------------|----------------------|----------------------|----------------------|-------------------|-------------------|--------------------|
| | 12월 | 1/4 | 2/4 | 3/4 | 10월 | 11월 |
| 회사채 발행(순) ¹⁾ | -23,335 (-25,356) | -27,132 (-22,936) | -33,427 (-10,494) | -8,030 (7,152) | -1,529 (8,310) | 14,627 (16,627) |
| CP발행(순) | -27,047 | 46,174 | 34,346 | 24,988 | 22,060 | 8,395 |
| 주식발행 ²⁾ | 16,318 | 6,655 | 9,138 | 27,775 | 899 | 875 |

주 : 1) 일반기업 발행분 단, ()내는 Primary CBO편입분 및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제외
 : 2)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기준, 금융기관 발행분 및 채무조정기업 출자전환분 제외
 자료 : 한국은행

2002년중 전국어음부도율 전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 유지

- 2/4분기중 최저수준인 0.04%까지 하락하였던 전국어음부도율은 대우계열사 부도가 마무리된 8월 이후 10월까지 0.05% 수준 유지
 - 특히 어음부도율은 서울보다는 지방이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월별 전국 부도업체수는 4월중 311개까지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나 10월중에는 400개로 증가
 - 전년도 평균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 법인수의 배율은 10월중에는 18.1을 기록

<표 10> 전국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 개, 배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 | |
|-------------------------|-------|-------|-------|------|------|------|------|------|
| | 연간 | 연간 | 1/4 | 2/4 | 7월 | 8월 | 9월 | 10월 |
| 어음부도율(전국) ¹⁾ | 0.26 | 0.23 | 0.08 | 0.05 | 0.06 | 0.05 | 0.05 | 0.05 |
| 서울 | 0.34 | 0.23 | 0.08 | 0.05 | 0.05 | 0.04 | 0.04 | 0.04 |
| 부도업체수(전국) | 6,718 | 5,277 | 1,000 | 977 | 369 | 357 | 351 | 400 |
| 서울 | 2,559 | 1,997 | 375 | 382 | 146 | 130 | 136 | 158 |
| 신설법인/부도법인 ²⁾ | 14.8 | 16.9 | 23.3 | 21.7 | 17.6 | 18.6 | 17.0 | 18.1 |

주 : 1)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 8대 도시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자금의 단기 및 보수적 운용 현상 더욱 심화

- 수시 입출금식 및 단기시장성 수신(CD, RP, 표지어음 등) 등 단기예금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4/4분기 들어 더욱 심화되는 모습
 - 세금납부 요인이 있었던 7월을 제외하고는 은행권의 수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신권은 MMF외에는 자금유입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금리와 주가의 향방에 주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경기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자금의 단기 보수화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권과 기관들의 채권

매수세가 늘면서 채권관련 상품인 MMF와 단기채권형 상품으로 자금유입세가 확대

- 특히 초단기 수신인 MMF의 경우 11월중에만 3조원 이상 늘면서 발행잔액이 51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 11월중순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약관련된 고객예탁금이 소폭 증가하였을 뿐 주식형 및 혼합형 상품은 11월 들어 오히려 자금이탈 규모가 확대되었음.

<표 11> 금융기관별 주요수신 동향

단위 : 억원, 증감액 기준

| | 2002년 | | | | | | | |
|------------|---------|---------|---------|--------|---------|---------|---------|-----------|
| | 3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1월말 잔액 |
| 은행계정 | 136,427 | 62,845 | -34,017 | 95,293 | 42,609 | 77,291 | 83,292 | 5,370,434 |
| 실제요구불 | 878 | 12,210 | -8,370 | 9,235 | 14,777 | 13,636 | -3,087 | 392,973 |
| 저축성예금 | 94,360 | 28,449 | -13,129 | 69,680 | 28,294 | 60,014 | 50,383 | 4,433,083 |
| (정기적금) | 62,898 | 29,050 | 15,570 | 36,916 | 16,428 | 42,598 | 23,152 | 2,435,080 |
| (수시입출식) | 43,539 | -2,819 | -33,946 | 29,408 | 10,170 | 16,126 | 27,121 | 1,372,661 |
| <MMDA> | 22,898 | -9,072 | -19,842 | 13,749 | -15,867 | 24,998 | 18,643 | 459,264 |
| CD+RP+표지어음 | 41,189 | 22,186 | -12,518 | 16,378 | -462 | 3,641 | 34,996 | 544,378 |
| 금전신탁 | -10,862 | -2,853 | -6,219 | -3,529 | -9,069 | 4,012 | -2,191 | 707,261 |
| 추가금전 | -1,592 | -769 | -237 | -679 | -1,012 | -1,764 | -417 | 38,373 |
| 신노후연금 | -11,155 | -2,459 | -2,429 | -2,981 | -2,914 | -4,236 | -4,498 | 33,942 |
| 단위금전 | -1,043 | -91 | -1,308 | -13 | -3,327 | -391 | -1,561 | 27,694 |
| 신종적립 | -4,741 | -3,009 | -5,078 | -2,620 | -2,272 | -2,526 | -3,112 | 65,263 |
| 특정금전 | 15,336 | 5,762 | 6,508 | 7,535 | 4,706 | 21,751 | 11,841 | 317,097 |
| 기타 | -7,667 | -2,287 | -3,675 | -4,789 | -4,250 | -8,822 | -4,444 | 224,892 |
| 투신사 | 45,373 | -30,806 | 22,416 | 47,148 | -19,900 | 15,145 | 25,696 | 1,679,906 |
| 단기채권투자신탁 | 11,856 | 4,693 | 16,317 | 17,020 | 6,711 | 23,663 | 19,397 | 359,532 |
| 장기채권투자신탁 | -27,608 | -10,711 | -12,825 | 377 | -7,394 | -8,864 | 2,971 | 243,627 |
| MMF | 27,154 | -25,129 | 13,594 | 28,968 | -8,427 | 9,543 | 30,309 | 510,367 |
| 주식투자신탁 | 14,764 | 1,076 | -1,047 | 1,397 | 839 | 4,366 | -1,772 | 95,834 |
| 혼합투자신탁 | 19,207 | -735 | 6,377 | -614 | -11,629 | -13,563 | -25,209 | 470,546 |
| 종금사 | 5,641 | -8,561 | 4,357 | -1,561 | -1,061 | 5,343 | 1,267 | 10,314 |
| 채신예금 | -1,966 | 8,487 | -10,622 | 1,313 | 2,048 | 798 | 4,924 | 297,631 |
| 증권사고객예탁금 | 12,314 | -6,271 | -2,282 | -1,482 | -9,642 | 8,376 | 1,612 | 92,358 |
| 주식형뮤추얼펀드 | 10,142 | 2,628 | 227 | 35 | 2,210 | 378 | -773 | 66,397 |

자료 : 한국은행

주식시장 10월 중순 이후 상승기조로 전환

- 3/4분기까지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 확산으로 주가 하락이 이어졌으나 4/4분기 이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상승기조로 전환되었음.
- 미국의 소비 등 여러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주가가 경기둔화 등 미국의 펀더멘탈 약화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기업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이 상승기조 전환에 크게 기여
- 또한 국내경제 펀더멘탈이 기대보다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 점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의 순매도 기조에서 벗어나 매수를 확대한 점도 국내증시 상승기조에 기여

<표 12> 주가추이

| | 2001년 | 2002년 | | | | | | | |
|--------|--------|--------|--------|--------|--------|--------|--------|--------|--------|
| | 12월 | 1월 | 3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종합주가지수 | 693.70 | 748.07 | 895.58 | 742.72 | 717.99 | 760.40 | 646.42 | 658.92 | 724.80 |
| 코스닥지수 | 72.21 | 77.36 | 92.73 | 60.85 | 58.62 | 59.11 | 46.71 | 48.05 | 51.90 |
| 다우존스지수 | 10,022 | 9,920 | 10,404 | 9,243 | 8,737 | 8,664 | 7,592 | 8,397 | 8,896 |
| 나스닥지수 | 1,905 | 1,934 | 1,845 | 1,463 | 1,328 | 1,315 | 1,172 | 1,330 | 1,479 |

주 : 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금년도 국내 주식시장 부진의 일차적 요인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로 금년 2월 중

순 이후 지난 9월까지 외국인들은 5.3조원이상의 주식을 순매도 하였음.

- 10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24조원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연간개념으로 외국인이 주식투자는 순매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92년 국내증시를 개방한 이후 금년이 처음

<표 13>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단위 : 억원

| | 2001년 | | 2002년 | | | | | |
|---------------------|--------|-------|---------|--------|---------|--------|-------|--------|
| | 11월 | 12월 | 상반기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주식순매수 ¹⁾ | 19,265 | 5,790 | -36,307 | -3,606 | -11,654 | -1,322 | 4,854 | 19,220 |

주 : 1) 거래소+코스닥

자료 : 한국은행

-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4/4분기 들어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고객예탁금은 상반기의 10조원대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9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주식시장 수급사정은 크게 나쁘지 않은 편임.

<표 14> 주식시장 수급양상 추이

단위 : 억원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 |
|---------|--------|--------|---------|--------|--------|--------|--------|
| | | | 1/4 | 2/4 | 3/4 | 10월 | 11월 |
| 유상증자 | 41,939 | 50,903 | 20,515 | 8,567 | 26,536 | 855 | 854 |
| 기업공개 | 11,269 | 2,178 | 231 | 4,640 | 1,239 | 44 | 21 |
| 계 | 53,208 | 53,081 | 2,246 | 13,207 | 27,775 | 899 | 875 |
| 고객예탁금잔액 | 60,576 | 77,510 | 120,038 | 95,776 | 82,390 | 90,746 | 92,358 |
| 신용융자잔고 | 6,828 | 1,749 | 3,472 | 3,095 | 2,369 | 2,081 | 2,049 |

주 : 1)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기준

2) 고객예탁금잔액과 신용융자잔고는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증권업협회

콜금리목표 동결로 장단기금리 일정범위의 박스권 내에서 안정세

- 지난 6월 한은의 지속적인 콜금리 목표 동결로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8월 이후부터는 5.3~5.5%의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안정적인 모습
- 11월 들어 7일 미연준의 예상외의 대폭적인 금리인하와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채권시장 내의 매수심리가 회복되어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크게 하락해 11월 13일에는 연중 최저치인 5.17%를 기록
- 이후 단기금락에 대한 경계감과 국내외 주가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다시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종전의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으로 회귀하였음.
- 이는 금리가 그동안 보여왔던 것처럼 채권시장과 주식시장과의 연동성 내에서 움

전망과 정책과제

직이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함.

- CP금리, CD 금리 등 단기시장성 금리는 금융기관 수신 동향에 따라 소폭 등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콜금리는 하반기 이후 4.27%~4.28%의 매우 좁은 변동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5월 콜금리목표 인상 시점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하반기 이후 장단기 금리의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국고채금리-콜금리)는 9월이후 1.0%대에서 안정적인 모습
 -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은행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고금리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고채와 회사채간의 금리격차가 상대적으로 축소

<표 15>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연리(%)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 | | | | |
|------------|-------|-------|-------|------|------|------|------|------|------|------|------|
| | 12월 | 1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콜(익일)(A) | 6.01 | 4.00 | 3.99 | 4.04 | 4.17 | 4.35 | 4.27 | 4.27 | 4.27 | 4.28 | 4.27 |
| CP(91일) | 7.26 | 5.07 | 4.98 | 4.86 | 4.94 | 5.03 | 5.05 | 4.80 | 4.86 | 4.94 | 4.90 |
| 국고채(3년)(B) | 6.70 | 5.91 | 6.39 | 6.33 | 6.14 | 5.66 | 5.54 | 5.45 | 5.30 | 5.33 | 5.35 |
| 회사채(3년)(C) | 8.13 | 7.04 | 7.07 | 7.11 | 6.90 | 6.59 | 6.42 | 6.23 | 6.00 | 5.95 | 5.96 |
| B-A(%P) | 0.69 | 1.91 | 2.29 | 2.29 | 1.97 | 1.31 | 1.27 | 1.18 | 1.03 | 1.05 | 1.08 |
| C-A(%P) | 2.12 | 3.04 | 3.08 | 3.07 | 2.73 | 2.24 | 2.15 | 1.96 | 1.73 | 1.67 | 1.69 |

주 : 월말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일일금융시장 동향

달러약세기조 진정으로 원달러환율 1,200원대에서 안정세

- 금년 들어 원/달러 환율은 4월 중순 1,330원대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엔/달러환율의 등락에 따라 7월 하순에는 1,160원까지 급락했다가 4/4분기 들어서는 1,200원~1,235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
- 11월 들어 원/달러환율은 미연준의 금리인하와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 등으로 엔/달러환율이 120엔을 하향 돌파함에 따라 급락하여 11월말에는 1208.8원으로 마감
- 원/달러환율은 12월 들어 전반적인 엔/달러환율 상승기조가 이어지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전망과 달러화에 대한 역외매수세 역시 원달러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
- 다만 월말 네고물량의 유입이 예상되어 원/달러환율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 16> 원화 및 엔화 환율 추이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 | | |
|--------|---------------------|-------------------|------------------|-------------------|-------------------|-------------------|------------------|-------------------|-------------------|
| | 12월 말 | 12월 말 | 3월 말 | 6월 말 | 7월 말 | 8월 말 | 9월 말 | 10월 말 | 11월 말 |
| 원/달러 | 1,267.50 (-10.0) | 1,313.5 (3.1) | 1,325.9 (0.2) | 1,201.8 (-2.6) | 1,197.0 (-0.4) | 1,200.5 (0.3) | 1,225.5 (2.1) | 1,233.4 (0.6) | 1,208.0 (-2.1) |
| 엔/달러 | 114.41 (-10.6) | 131.64 (6.6) | 132.78 (-0.6) | 119.21 (-3.8) | 119.80 (0.5) | 118.40 (-1.2) | 122.80 (3.7) | 122.90 (0.1) | 121.61 (-1.0) |
| 원/100엔 | 1,101.78 (0.9) | 1,009.4 (-2.7) | 998.95 (1.1) | 1004.51 (0.6) | 994.35 (-1.0) | 1,013.49 (1.9) | 998.37 (-1.5) | 1,003.54 (0.5) | 986.28 (-1.7) |

주 : 1) 증가기준 2) 뉴욕시장 증가
 : 3) 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 4) ()내는 전월말대비 절상(+), 절하(-)율(%)

- 2002년 10월말 현재 총대외채권은 1,773억 달러로 지난해말 대비 154억 달러나 크게 증가하였으나 총대외지불부담 규모 역시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 1,297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지난해말 대비 98억 달러나 증가
- 이에 따라 순채권 규모는 10월말 현재 476억 달러로 지난해말 대비 56억 달러 증가.

<표 17> 총대외지불부담금과 채권동향

단위 : 억 달러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 | |
|---------|--------|--------|--------|--------|--------|--------|--------|--------|--------|
| | 연말 | 연말 | 연말 | 3월말 | 6월말 | 7월말 | 8월말 | 9월말 | 10월말 |
| 총대외지불부담 | 1,371 | 1,363 | 1,199 | 1,195 | 1,258 | 1,291 | 1,292 | 1,298 | 1,297 |
| 장기외채 | 978 | 921 | 810 | 783 | 781 | 785 | 777 | 769 | 772 |
| 단기외채 | 392 | 442 | 389 | 412 | 477 | 507 | 515 | 529 | 525 |
| (비중) | (28.6) | (32.4) | (32.4) | (34.5) | (37.9) | (39.3) | (39.9) | (40.8) | (40.5) |
| 총대외채권 | 1,458 | 1,669 | 1,619 | 1,649 | 1,714 | 1,735 | 1,746 | 1,758 | 1,773 |
| 순채권 | -202 | 306 | 420 | 454 | 455 | 443 | 454 | 460 | 476 |

자료 : 재정경제부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세계경제 : 2003년 완만한 회복 예상

- 2003년 세계경제는 더디지만 꾸준한 경제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
 -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위협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여부에 따라 성장할 전망
- 세계교역은 내년 중반경부터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신장률이 금년 보다 상당폭 높아질 전망

<표 18>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전년대비(%)

| | 2000 | 2001 | 2002 ¹⁾ | 2003 | | | | | |
|------------|------|------|--------------------|------|-------------------|-----------|------------|--------------|------------|
| | | | | IMF | OECD | WorldBank | E U 집행위 | DRI- WEFA | 모 건 스텐리 |
| 전세계 | 4.7 | 2.2 | 2.8 | 3.7 | - | 2.5 | 3.6 | 2.6 | 3.0 |
| 선진국 | 3.8 | 0.8 | 1.7 | 2.5 | 2.2 ²⁾ | 2.1 | - | - | 2.0 |
| (미 국) | 3.8 | 0.3 | 2.2 | 2.6 | 2.6 | 2.6 | 2.3 | 2.6 | 2.7 |
| (일 본) | 2.4 | -0.3 | -0.5 | 1.1 | 0.8 | 0.8 | 1.2 | 1.4 | 0.6 |
| (E U) | 3.5 | 1.5 | 0.9 | 2.3 | 1.8 | 1.8 | 1.8 | 2.3 | 1.4 |
| 세 계 교역량 | 12.6 | -0.1 | 2.1 | 6.1 | 7.7 | 7.0 | 6.2 | 10.0 | - |

주 : 1) IMF기준, 2) OECD회원국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2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2

EU 집행위, Autumn 2002 Economic Forecasts, 2002. 11

DRI-WEFA, Monthly Outlook, 2002. 11

WorldBank, Global Economics Prospects 2003, 2002. 12

미국 : 2003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회복 예상

- 3/4분기 GDP실질성장률이 4.0%성장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기대는 성급
 - 3/4분기 성장의 주 요인은 자동차를 포함한 내구재판매가 급증(22.7%)하여 소비자출이 금년 들어 가장 높은 41%의 기록을 보임. 이는 지난 2/4분기 소비자지출이 1.8% 증가에 그치고 내구재판매가 2% 증가에 그친 것과 크게 대조

- 4/4분기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성장의 주 요인이었던 내구재판매의 감소가 예상되어 1% 전후의 성장이 예상
- 최근 거시 경가지표들이 호조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전쟁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산업생산의 둔화와 고용관련지표들이 부진
- 예상보다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5.1%), 10월중 민간건설지출 증가(전월대비 0.2% 증가), 3개월만에 내구재주문 증가 등 긍정적인 경제지표들이 발표됨.
- 그러나 11월 ISM제조업지수는 3개월 연속 50이하를 기록하고 11월 산업생산이 크게 둔화(전월대비 -0.8%)되어 제조업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낮은 공장가동률(10월중 75.2%), 실업률의 증가.(11월 전월대비 0.3%p 상승한 6.0% 기록)
- 2003년 미국경제는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하반기부터 설비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점차 회복국면으로 전환예상

<표 19> 미국의 경제성장과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 | 2000년 | 2001년 | | 2002년 | | | | | | |
|------------------------|----------------|----------------|----------------|----------------|----------------|----------------|----------------|----------------|----------------|----------------|
| | | | 4/4 | 1/4 | 2/4 | 3/4 | 8월 | 9월 | 10월 | 11월 |
| GDP성장률 | 3.8 | 0.3 | 2.7 | 5.0 | 1.3 | 4.0 | | | | |
| 소비 | 4.4 | 2.5 | 6.0 | 3.1 | 1.8 | 4.1 | | | | |
| 투자 | 6.2 | -10.7 | -17.3 | 18.2 | 7.9 | 3.1 | | | | |
| 정부지출 | 2.7 | 3.7 | 10.5 | 5.6 | 1.4 | 3.1 | | | | |
| 수출 | 9.7 | -5.4 | -9.6 | 3.5 | 14.3 | 3.3 | | | | |
| 수입 | 13.2 | -2.9 | -5.3 | 8.5 | 22.2 | 2.3 | | | | |
| 산업생산증가율 | 4.5 | -3.7 | -1.7 | 0.7 | 1.0 | 0.9 | -0.2 | -0.0 | -0.8 | - |
| 제조업평균가동률 | 81.8 | 76.8 | 74.7 | 73.5 | 74.0 | 74.4 | 74.5 | 74.1 | 73.5 | - |
| 소매판매 | 6.7 | 3.8 | 3.0 | -0.6 | 1.1 | 1.6 | 0.5 | -1.2 | 0.0 | 0.4 |
| 실업률 | 4.0 | 4.8 | 5.6 | 5.6 | 5.9 | 5.7 | 5.7 | 5.6 | 5.7 | 6.0 |
| 노동생산성 | 2.9 | 1.1 | 7.3 | 8.6 | 1.7 | 5.1 | - | - | - | - |
| 단위노동비용 | 3.9 | 1.6 | -5.4 | -5.3 | 2.2 | -0.2 | - | - | - | - |
| 소비자신뢰지수 ¹⁾ | 139.0 | 106.6 | 88.3 | 101.2 | 108.4 | 95.2 | 94.5 | 93.7 | 79.6 | 84.1 |
| ISM제조업지수 ²⁾ | 51.6 (59.2) | 43.9 (49.0) | 44.1 (46.8) | 53.4 (55.2) | 55.3 (57.5) | 50.2 (52.6) | 50.5 (50.9) | 49.5 (53.9) | 48.5 (53.1) | 49.2 (57.4) |

주 : 1) Conference Board(1985=100)

2) 괄호안은 ISM비제조업지수임.

자료 : 미국 상무부, 노동부, 연방준비위원회, 공급자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일본 : 2003년 완만한 경기회복 기대

- 올해 3/4분기 GDP증가율은 수출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증가에 힘

입어 예측치 0.1%를 크게 상회하는 전기비 0.8% 증가(연율 3.2%)하여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민간소비는 가전·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증가에 힘입어 전기대비 1% 증가한 반면, 일본경제의 회복을 주도해 왔던 수출증가율은 전기대비 0.6%로 크게 둔화
-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부담으로 제반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비 0.3% 하락하여 2개월 연속 하락하여 회복세가 둔화, 10월 실업률은 작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5.5% 기록, 소비자물가는 전기대비 0.2% 하락하여 다시 디플레이션상태
- 최근 불량채권 처리를 가속화한다는 발표들이 새로운 리스크요인으로 대두되어 기업도산 및 실업증가가 개인소비의 정체, 생산축소 및 설비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
- 일본정부는 2003년도 실질성장률을 0.5%로 전망
- 내각부는 실업 증가 등의 디플레 압력은 여전히 높지만 대중국수출호조와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수출증가로 2003년부터는 완만한 경기회복을 기대

<표 20>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기대비(%)

| | 2000년 | 2001년 | | 2002년 | | | | | | |
|---------|-------|-------|------|-------|------|------|------|-------|------|------|
| | | 4/4 | 1/4 | 2/4 | 3/4 | 7월 | 8월 | 9월 | 10월 | |
| GDP성장률 | 2.8 | -0.5 | -0.5 | 0.0 | 0.9 | 0.8 | | | | |
| 소 비 | 1.0 | 1.7 | 0.3 | 0.5 | 0.5 | 1.0 | | | | |
| 투 자 | 9.7 | 0.5 | -3.6 | -1.7 | 0.3 | -0.5 | | | | |
| 정부지출 | 4.7 | 2.5 | 0.5 | 0.8 | 0.1 | 0.7 | | | | |
| 수 출 | 12.4 | -6.5 | -1.6 | 4.8 | 5.9 | 0.6 | | | | |
| 수 입 | 9.2 | -0.9 | -2.1 | 0.1 | 3.5 | 2.6 | | | | |
| 광공업생산지수 | 5.8 | -7.5 | -3.4 | 0.7 | 3.8 | 2.2 | 0.1 | 1.4 | -0.1 | -0.3 |
| 생산자출하 | 6.0 | -7.2 | -3.5 | 1.2 | 4.3 | 1.8 | -0.3 | 4.0 | -1.8 | 0.7 |
| 생산자재고 | 2.2 | 2.1 | -3.3 | -4.3 | -3.0 | 0.2 | 0.7 | -0.9 | 0.5 | 0.6 |
| 가동율 | 4.5 | -6.8 | -2.2 | 3.0 | 0.0 | 4.2 | 5.8 | -11.3 | 11.1 | -0.9 |
| 소매판매액 | -1.6 | -2.2 | -2.0 | 0.5 | -1.5 | -0.6 | -2.5 | 2.7 | 0.0 | -2.0 |
| 자본재출하* | 10.1 | -6.1 | -3.8 | -0.5 | -1.5 | 1.8 | -1.1 | 8.7 | -4.9 | -0.9 |
| 민간기계수주* | 19.0 | -5.8 | -7.5 | -7.4 | 7.1 | -1.7 | 1.9 | -13.6 | 12.7 | -4.1 |
| 실업률 | 4.7 | 5.0 | 5.4 | 5.3 | 5.3 | 5.4 | 5.4 | 5.4 | 5.4 | 5.5 |
| 소비자물가 | -0.7 | -0.7 | -0.4 | -0.7 | 0.4 | -0.2 | -0.4 | 0.3 | 0.0 | -0.2 |

주 : * 선박·전력 제외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일본은행 등

유로지역 : 부진한 성장세 지속

- Euro Zone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은 2/4분기와 동일한 0.3%(연율 1.2%, 전년동기비

0.8%) 성장하였으나 당초 전망보다 감소하고 대내외 경기의 악화로 경기의 조기회복 전망도 불투명

- 성장의 주 요인은 가계소비지출이 0.5% 증가하고, 지난 5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총고정투자가 보험세를 보인 것에 기인
- 높은 실업률의 지속,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투명으로 유로지역의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개월 연속 50을 하회, 독일의 Ifo경기지수의 6개월 연속 하락, 프랑스의 INSEE지수 등 주요 심리지표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유로경제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추가급락, 미국경제 회복지연 등 대내외여건의 악화로 부진한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럽중앙위원회(ECB)는 12월 공개시장조작금리를 3.25%에서 2.75%로 50bp 인하
 - 그동안 ECB는 경제성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대처
- 유로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로권 경제성장률은 2003년 1.8%, 2004년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2. 4월 전망치보다 각각 0.65p, 1.1%p 하향조정된 수준임.
 - 2002년중 유로지역 경제성장의 동인은 수출이었으며 그간 부진하였던 소비는 실제 및 체감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개선됨에 따라 2003년에는 신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표 21>EU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 | 2000년 | 2001년 | | 2002년 | | | | | | | |
|----------------------|-------|-------|------|-------|------|------|------|------|------|------|------|
| | | 연간 | 4/4 | 1/4 | 2/4 | 3/4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GDP 성장률 | 3.5 | 1.5 | -0.3 | 0.4 | 0.3 | 0.3 | | | | | |
| 소비 | 2.5 | 1.8 | 0.0 | -0.2 | 0.2 | 0.5 | | | | | |
| 투자 | 4.7 | -0.7 | -0.9 | -1.0 | -1.2 | 0.0 | | | | | |
| 정부지출 | 1.9 | 1.9 | 1.4 | 0.9 | 0.8 | 0.3 | | | | | |
| 수출 | 12.6 | 2.6 | -1.3 | 0.0 | 1.6 | 2.2 | | | | | |
| 수입 | 11.2 | 1.3 | -1.4 | -0.9 | 1.4 | 2.2 | | | | | |
| 산업생산 | 5.6 | 0.5 | -1.7 | 0.4 | 0.5 | 0.0 | -0.5 | 0.2 | -0.2 | - | - |
| 소매판매 | 2.3 | 1.5 | 0.4 | 0.1 | -0.3 | 0.7 | 0.9 | 1.0 | -2.1 | - | - |
| CPI상승률 ¹⁾ | 2.3 | 2.5 | 2.1 | 2.6 | 2.1 | 2.0 | 1.9 | 2.1 | 2.1 | 2.3 | - |
| 실업률 | 8.5 | 8.0 | 8.1 | 8.1 | 8.2 | 8.3 | 8.3 | 8.3 | 8.3 | 8.4 | - |
| 경기 체감지수 | 103.7 | 100.8 | 98.7 | 99.0 | 99.3 | 98.9 | 99.0 | 98.7 | 99.0 | 98.8 | 98.6 |
| 제조업PMI ²⁾ | 57.4 | 47.8 | 43.6 | 48.3 | 51.4 | 50.4 | 51.6 | 50.8 | 48.9 | 49.1 | 49.5 |

주 : 1) CPI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임.

2) 1995=100

자료 : ECB, Monthly Bulletin(2002. 12), EUROSTAT

2.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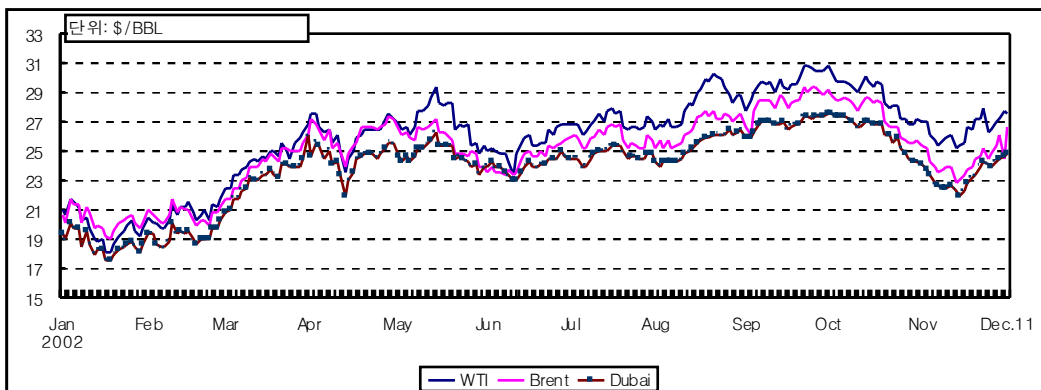
국제유가 : 2003년 유가불안 진정될 전망

- 2002년 국제유가는 연초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후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대 테러전쟁발발 우려로 배럴당 약 33\$내외의 전쟁 프리미엄을 형성

- 3월초 배럴당 21\$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9월말에는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에 대한 압박설이 확산되면서 연초대비 50% 상승하여 배럴당 30\$수준으로 상승(WTI기준)
- 10월~11월말 기간동안에는 국제사회의 UN을 통한 해결촉구, 이라크의 UN 무기사찰 수용, 부시 대통령의 전쟁 신중론으로 약세를 보였음. 그러나 12월 들어서는 베네수엘라의 파업장기화에 따른 원유공급중단과 OPEC의 산유량 감축 합의로 다시 상승세

<그림 13> 국제 원유가격 현물추이



- 2003년도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이 조기에 종료된다면 연평균 22\$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Dubai기준)
-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연평균 배럴당 30~33달러,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압박과 외교적 해결의 양면전략을 추구한다면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되어 연평균 25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3. 국제금리 및 환율

국제금리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향후 상승세 기대

- 그동안 미국·일본·EU 장·단기금리들은 경기회복지연으로 하락세 지속
 - 미국과 EU국가들은 주식시장의 침체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채권수요가 증가하여 하락세가 지속
- 미국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미 연준의 지역경제동향보고서(Beige Book) 발표와 ECB의 공개시장조작금리의 인하발표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과 EU의 장기금리 상승세 기대

<표 22> 주요국의 장·단기 금리 추이

단위 : %

| | | 2000년 | 2001년 | | 2002년 | | | | | | | | |
|-------|----|-------|-------|------|-------|------|------|------|------|------|------|-------|------|
| | | | 4/4 | 1/4 | 2/4 | 3/4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11 | |
| 단기 금리 | 미국 | 6.53 | 3.78 | 2.14 | 1.90 | 1.92 | 1.81 | 1.85 | 1.78 | 1.80 | 1.78 | 1.46 | 1.41 |
| | 일본 | 0.28 | 0.15 | 0.08 | 0.10 | 0.08 | 0.07 | 0.07 | 0.07 | 0.07 | 0.07 | 0.07 | 0.06 |
| | 유로 | 4.40 | 4.26 | 3.44 | 3.36 | 3.44 | 3.36 | 3.41 | 3.35 | 3.31 | 3.26 | 3.12 | 2.92 |
| 장기 금리 | 미국 | 6.03 | 5.01 | 4.74 | 5.06 | 5.09 | 4.25 | 4.62 | 4.24 | 3.88 | 3.91 | 4.04 | 4.03 |
| | 일본 | 1.76 | 1.34 | 1.35 | 1.46 | 1.38 | 1.24 | 1.30 | 1.26 | 1.16 | 1.09 | 0.99 | 1.02 |
| | 유로 | 5.44 | 5.03 | 4.82 | 5.14 | 5.25 | 4.76 | 5.03 | 4.13 | 4.52 | 4.62 | 4.59 | - |

주 : 단기금리는 3개월물 리보금리이며, 장기금리는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사용
 자료 : ECB, Monthly Bulletin(2002. 12), EUROSTAT

환율 : 달러화, 소폭 약세 전망

■ 달러화는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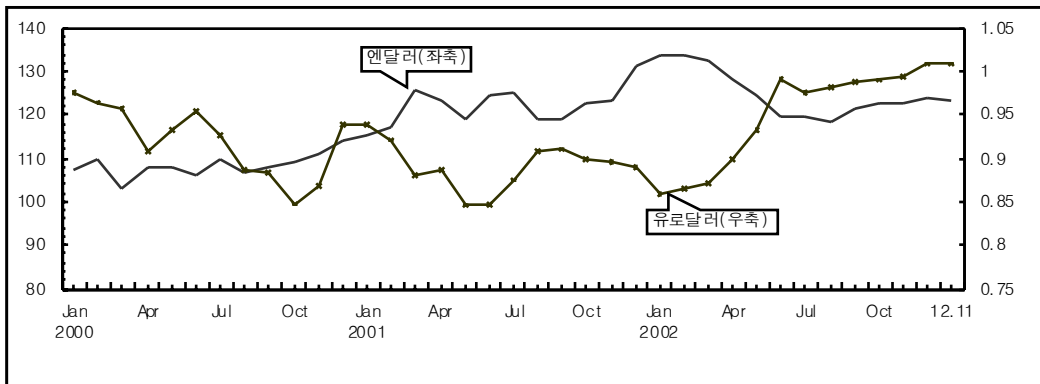
- 9월이후 120~123엔 범위에서 유지되던 엔달러환율은 12월 들어 일본정부관료들의 엔화약세 유도발언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유로화의 경우, 유로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한 유럽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금리인하의 결정과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가능성의 증대에 따른 유로화 수요증대 등으로 미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평가절하 경쟁이 예상

전망과 정책과제

- 올해 GDP의 4.6%로 예상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달러화의 평가절하가 필요한 반면, 엔화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엔화가치의 하락이 필요함을 정부관료들이 시사
- 그러나 올해 GDP의 3.3%로 예상되는 일본의 대외수지 흑자를 감안할 때 달러화의 절하폭이 엔화의 절하폭보다 클 전망
- 주요 투자기관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115.0~120수준으로 전망(2003년 연말기준)
 -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JP Morgan은 상반기에 121~124엔, 하반기에는 115.0~120엔 전망

<그림 14> 엔화 및 유로화 환율 추이(기말기준)



제 3 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내년 불안요인 많으나 5%대 후반 성장 전망

- 하반기 내수의 가시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02년 연간 성장률은 작년의 두 배인 6.1%를 기록할 전망. 이라크 사태와 테러확산, 북핵문제 등의 지정학적인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이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할 때 현재의 성장추세는 수출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설비투자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2001년 저성장(3.0%)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금년에 비해 내년 성장률은 소폭 낮아진 5.8% 정도가 될 전망
- 그 동안 본원 전망이 지속적으로 예측했듯이 상반기 저금리 기조, 특소세 인하 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했던 내수증가세는 하반기 들면서 크게 둔화되었음. 이러한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올 들어 내수 증가를 이끌었던 소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1/4분기 8.4%에서 3/4분기에는 6.1%로 낮아졌는데 최근 도·소매 판매 추세 등을 보면 이런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함. 소비와 더불어 크게 늘었던 건설투자도 3/4분기에는 3.8% 감소하였음. 내년 중에도 건설투자 증가세가 미미할 전망이다.
- 2003년 민간소비는 약 5.2% 증가에 그쳐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전망. 올 해 시행된 각종 가계대출억제책이 소비증가세 둔화에 일조할 전망. 아울러 부동산 가격안정으로 그 동안 가격급등에 따라 소비증가에 중요하게 기여했을 正의 富의 효과 (positive wealth effect)가 제거될 전망. 건설투자의 증가는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임.
- 2/4분기부터 늘기 시작한 수출이 하반기 들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수를 대신하여 경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하반기 들어 50%를 상회함으로써 상반기 우리 경제가 내수중심 경제로 변모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이 성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수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나 증가율은 올해에 비해 낮아져 금액기준으로 약 8.5%, 물량기준으로 약 10%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아직까지도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對중국 수출증가가 중요하게 기여하여 실현된 수출회복은 향후 우리 수출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어 의미가 큼.
- 1970년대 이후 수출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수출선 다변화는 해묵은 우리 경제의 과제였음. 중국경제가 앞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와 보조를 맞추어 對중국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11월에 발표된 OECD와 EU집행위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 세계 교역량 신장률이 6% 내지 7%에 이를 전망. 2002년 교역량 증가가 약 2%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 증가임. 선진국경제 회복과 더불어 전체적인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對선진국 수출의 증가가 예견됨.
- 미국정부는 최근 경제팀의 개편을 계기로 2003년 초 감세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적극적인 경기진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됨.
- EU지역도 12월초에 유럽중앙은행이 정책이자율을 0.5% 인하함으로써 그 동안 경기진작에 소극적이었던 정책기조의 변화를 보여줌. 그 자체만으로는 미흡할지 모르나 경기부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큼. 이와 더불어 성공적 유로貨 출범을 위해 각국의 재정적자를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Stability Pact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정책이 사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올해에 이어 수출이 2003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경우 기업들의 생산능력에 압박을 가할 것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지난 2년간 부진했던 것을 감안할 때, 해외 수요 증가는 생산능력확충을 위한 기업 설비투자 증대를 유인할 전망
- 2002년 설비투자가 약 7% 증가할 전망이나 이는 2001년 마이너스 10%에 따른 기술적 반등성격의 변화라 할 수 있음. 아울러 3/4분기 설비투자는 전기에 비해 오히려 줄었음. 이에 비해 내년에 예상되는 약 10% 가까운 증가는 생산능력 순증의 의미를 가짐.
- 하지만 내년에도 올 하반기의 내수부진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내수와 수출비중 차이에 기인하는 산업별 체감경기와 투자 행태의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수출호조가 지

속될 경우 내수 및 내수관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내년 말경에는 나타날 전망

2.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상승률, 내년 3%대 초반에서 안정될 전망

- 올 9월 이전까지는 낮은 석유류가격, 공공요금 인하 등에 힘입어 대체로 2% 중반 증가율을 보였으나 9월 이후 농산물가격 상승, 석유류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음.
-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평균 2.6% 증가하던 소비자물가는 4/4분기에 약 3.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런 전체적인 양태는 생산자물가에서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음.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평균 1% 정도의 증가하던 생산자물가는 4/4분기에 약 3.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런 추세는 내년 1/4분기까지 이어질 전망. 아울러 내년 중에도 금년에 이어 6%에 가까운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물가는 다소 상승압력을 받을 전망. 하지만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원화 환율의 절상추세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내년 소비자물가는 금년보다 조금 높은 3.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부문

내년 경상수지 흑자, 금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

- 올 하반기중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아직까지도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對중국 수출증가가 전체 수출증가를 이끌고 있음.
- 올 들어 연초부터 11월20일 까지 對미국 누적수출액은 285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3.1% 증가한데 비해 對중국 누적 수출액은 202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25.9% 증가
- 선진국 경제 회복에 동반하여 세계교역량 증가가 예상되고 중국경제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對중국 수출증가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수출금액(국제수지 기준)은 연간 8.5% 증가할 전망
- 내년 시설투자회복과 함께 자본재수입증가가 예상되어 수입 또한 크게 늘어 올해보다 더 높은 약 11%(금액기준)의 증가가 예상됨.
- 내년 상품수지 흑자폭이 올해보다 소폭 줄어들 것이나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내년 경상수지는 금년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4. 전망의 위험요인

해외경제여건 악화 가능성과 기업투자부진 장기화 가능성

- 본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변수(downside risk)가 존재함.
 - 지정학적 위험요인에 따른 해외경제여건 악화
 - 기업투자부진의 장기화 가능성
- 미국과 EU의 부양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사태, 테러확산, 북한의 핵문제 등 지정학적인 위험요인들이 악화된다면 세계경제회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이 한가지 예임. 이에 따른 해외경제여건 악화는 내년 국내 경기의 견인차인 수출증대에 차질을 가져올 것임. 상황에 따라 성장률이 4% 이하로 낮아질 수도 있음.
- 둘째, 신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경영여건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본 전망과는 달리 기업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그 동안의 투자부진을 장기화시켜 현재의 경기회복세 지속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만약 그 동안 미미했던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노력이 더 후퇴한다면 향후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이 경우 투자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생산기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것임.

5. 금융부문

2003년 장기금리, 경제상황을 반영 점진적 상승세를 보일 전망

- 내년에는 경제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축소되고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회복도 가시화 되겠지만 통화정책기조가 급선회할 가능성은 적음.
 - 따라서 2003년 상반기 중에도 콜금리목표를 크게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에 이어 2003년에도 경기 및 물가 추이를 감안한 한국은행의 신축적 유동성관리 기조는 이어질 전망
- 현재의 금리수준이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도 금리 수준은 금년보다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수록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일 전망
 - 다만,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에서 당분간 각종 국내외 주요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적어도 1/4분기중에는 장·단기금리의 보합세가 이어질 전망
 - 미연준이 금리를 11월 7일 예상외로 큰 폭 인하하였고 미정부의 재정확대 등으로 디플레이션과 美경기 둔화 우려감이 일부 희석되었기 때문에 2003년에도 장기금리의 하방경직성은 이어질 전망

<표 23> 2002~2003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 | 2001년 | 2002년 | | | | 2003년 |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국내 총생산 | 3.0 | 5.8 | 6.4 | 5.8 | 6.2 | 6.1 | 5.0 | 5.6 | 5.9 | 6.4 | 5.8 |
| 총소비 | 3.7 | 8.0 | 7.3 | 5.6 | 5.0 | 6.4 | 4.3 | 4.8 | 5.1 | 5.4 | 4.9 |
| 민간소비 | 4.2 | 8.4 | 7.6 | 6.1 | 5.5 | 6.9 | 4.6 | 5.1 | 5.4 | 5.5 | 5.2 |
| 고정자본형성 | -1.7 | 6.5 | 5.5 | 0.9 | 2.3 | 3.7 | 2.7 | 4.5 | 6.1 | 5.9 | 4.8 |
| 설비투자 | -9.8 | 3.2 | 7.4 | 7.7 | 7.9 | 6.5 | 7.9 | 8.5 | 8.9 | 8.7 | 8.5 |
| 건설투자 | 5.8 | 10.1 | 3.9 | -3.8 | -1.2 | 1.5 | -2.7 | 1.1 | 3.9 | 3.9 | 1.8 |
| 총수출 | 1.0 | 1.8 | 11.6 | 18.3 | 18.4 | 12.5 | 12.5 | 8.9 | 9.1 | 8.7 | 9.7 |
| 총수입 | -2.8 | 6.2 | 19.2 | 20.1 | 18.0 | 15.8 | 14.6 | 10.5 | 10.3 | 9.6 | 11.2 |
| 생산자 물가 | 1.9 | -0.2 | 1.2 | 1.5 | 3.5 | 1.5 | 3.3 | 2.2 | 2.8 | 2.8 | 2.8 |
| 소비자 물가 | 4.1 | 2.5 | 2.8 | 2.5 | 3.2 | 2.7 | 3.4 | 2.8 | 3.2 | 3.4 | 3.2 |
| 경상수지 | 86.2 | 17.1 | 17.9 | 6.0 | 19.1 | 60.1 | 11.2 | 9.6 | -6.7 | -3.4 | 10.7 |
| 상품수지 | 133.9 | 32.7 | 43.7 | 30.1 | 41.2 | 147.7 | 32.7 | 38.4 | 20.9 | 24.6 | 116.7 |
| 수출 | 1,513.7 | 361.3 | 405.8 | 410.4 | 448.8 | 1,626.3 | 405.4 | 439.8 | 442.2 | 476.6 | 1,764.0 |
| 증가율(%) | -14.0 | -11.1 | 5.0 | 13.3 | 25.1 | 7.4 | 12.2 | 8.4 | 7.7 | 6.2 | 8.5 |
| 수입 | 1,379.8 | 328.6 | 362.1 | 380.3 | 407.6 | 1,478.6 | 372.7 | 401.4 | 421.3 | 451.9 | 1,647.3 |
| 증가율(%) | -13.3 | -12.1 | 7.8 | 14.2 | 21.0 | 7.2 | 13.4 | 10.9 | 10.8 | 10.9 | 11.4 |
|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 -47.7 | -15.5 | -25.8 | -24.1 | -22.1 | -87.6 | -21.5 | -28.8 | -27.6 | -28.1 | -106.0 |
| 원/달러 환율(평균) | 1,290.7 | 1,319.6 | 1,270.7 | 1,196.4 | 1,211.6 | 1,249.6 | 1,200.5 | 1,193.9 | 1,188.0 | 1,191.0 | 1,193.4 |
| 회사채수익률(% , 평균) | 7.0 | 7.0 | 7.0 | 6.3 | 5.9 | 6.6 | 6.2 | 6.7 | 7.2 | 7.6 | 6.9 |

- 가계부문의 이자부담과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을 감안할 때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내수회복 시점까지 금리가 크게 상승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실물시장과 괴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장기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회사채 유통 수익률기준으로 하반기에는 7%대에 이르러 연평균으로는 6.9%를 보일 전망
- 정부의 가계대출억제정책은 200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자금운용처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은행권 등은 채권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채권시장의 수급 여건을 강화시켜 줄 전망
- 이에 따라 2002년도 회사채발행시장은 순상환기조를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2003년에는 전반적으로 순발행기조를 보일 것이며 발행량도 증가할 전망

<표 24> 회사채발행 전망

단위 : 조원

| | 2001년 | 2002년 | | | | | 2003년(E) | | | | |
|-----|-------|-------|------|------|--------|------|----------|------|------|------|------|
| | | 1/4 | 2/4 | 3/4 | 4/4(E) | 연간 | 1/4 | 2/4 | 2/4 | 3/4 | 연간 |
| 총발행 | 91.1 | 11.4 | 13.8 | 10.9 | 16.5 | 52.6 | 18.0 | 16.5 | 12.0 | 12.0 | 58.5 |
| 상환 | 67.4 | 17.6 | 15.8 | 12.8 | 9.8 | 55.6 | 15.4 | 13.6 | 9.4 | 10.5 | 48.9 |
| 순발행 | 23.7 | -6.2 | -1.7 | -1.9 | 6.7 | -3.0 | 2.6 | 2.9 | 2.6 | 1.5 | 9.6 |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원/달러환율, 2003년도 점진적 하락세 전망

- 외화표시 외평채의 이자지급,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연간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세 유지 등의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 보유외환의 운용수익과 유로 및 엔화표시 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 증가로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18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말 대비 155억 달러나 증가

<표 25>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 달러(월말기준), %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 | | |
|-------|-------|-------|-------|-------|-------|-------|-------|-------|-------|-------|
| | 12월 | 12월 | 12월 | 3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외환보유고 | 740.5 | 962.0 | 1,028 | 1,061 | 1,124 | 1,155 | 1,165 | 1,167 | 1,170 | 1,183 |

자료 : 한국은행

- 금년 들어 3월 이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이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9월말 현재 45.3%를 기록하고 있음.
 - 경제규모와 외환보유고를 감안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표 26> 외채관리지표 추이

단위 : %

| | 97년 말 | 98년 말 | 99년 말 | 00년 말 | 01년 말 | 02.8월 말 | 02.9월 말 | 02.10월 말 |
|----------------------------|-------|-------|-------|-------|-------|---------|--------------------|--------------------|
| 총외채/GDP ¹⁾ (추정) | 33.4 | 46.3 | 33.7 | 28.5 | 27.9 | 28.9 | 28.8 ⁴⁾ | 28.5 ⁴⁾ |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²⁾ | 716.6 | 63.3 | 53.0 | 49.8 | 38.1 | 44.2 | 45.3 | 44.9 |
| 유동외채/외환보유액 ³⁾ | 924.0 | 138.1 | 75.7 | 65.3 | 51.8 | 55.2 | 56.2 | 56.2 |

주 1) 외채문제없는국가(30%미만), 경제무국(30~50%), 중채무국(50%초과)

2) 안정수준(60%미만), 경계수준(60~100%), 위험수준(100% 초과)

3) 안정수준(100%미만), 경계수준(100~200%), 위험수준(200% 초과)

4) GDP는 '01년 잠정치(4,222억불)에 02. 11월 발표된 경제성장률 및 평균환율을 반영

자료 : 재정경제부

- 2003년에도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현상과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투자 움직임이 원/달러환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엔화약세를 유지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시장개입 가능성과 일본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문제에 따르는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부각으로 엔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강세기조는 제한적일 전망
 - 마찬가지로 미국경제의 더블딥(double-dip) 우려감은 어느 정도 불식되었지만 미국경제의 쌍둥이 적자문제와 더불어 본격적 경기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달러화 강세 지속도 어려울 전망
 - 따라서 원/달러환율은 2003년중 미국경제 및 일본경제 모두에 상존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강세폭과 약세폭이 모두 제한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양상이 지속될 전망
- 2003년 중 경상수지 흑자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 등

달러화 공급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 달러화 수급여건은 공급우위를 보일 전망

- 이에 따라 원/달러환율은 2003년중 기초 경제여건이 반영되면서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져 연평균 1,193원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새 정부가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함.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가장 중요한 경제단위는 기업임.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항구적 잠재성장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
- 예를 들어 만약 그 동안 성과가 미미했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노력이 후퇴한다면 향후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이 경우 투자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것임.
- 최근에 정부가 제안한 ‘경제자유구역법’의 내용이 바로 우리 기업들이 어떤 경영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추진된 특별법의 기본내용은 현재 국내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의 규제와 여러 고용관행 등에 관한 한 특구입주 외국기업들에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법’ 상의 특혜사항을 보면 개발사업자에게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34개 법률에 대한 예외적용과 ‘법인세’ 등 7개

조세감면과 ‘개발부담금’ 등 9개 분담금 감면을 제시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의 예외적용과 각종 고용관행에 대해 예외인정을 제시하고 있음.
- 특별히 흥미있는 사항은 동 법 19조에는 경제자유구역안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개별적인 법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각종 제약은 고용,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 기업환경이 더 악화된다면 시장경제의 주축인 私기업의 입지는 현격히 축소될 것임.
- 12월 들어 경총이 1백대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정부의 우선 과제로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정책 확립, 규제완화, 신노사문화 정착과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꼽았음.
- 12월 전경련이 주요기업들을 대상으로 행한 중국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체적인 중국사업 확대방법으로 대상기업의 24%가 생산거점 이전을 제시하고 있고 중국의 매력으로는 방대한 내수시장 규모에 이어 약 34%가 값싼 노동력을 들고 있음. 국내 기업경영여건이 악화되면 될수록 중국으로 이전이 더욱 확산될 전망
- 국내 기업활동의 지속적 위축은 고용시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임.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고학력 구직자들의 취업난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큼. 고용창출은 기업활

동이 활발할 때 높아질 것임.

-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각종 지원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개선된 징후가 없음. 특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인력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만약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육성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다면 중소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해외근로자 도입을 공식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임.

2. 재정정책 역할강화를 위한 경제부처 재편 바람직

가. 통화정책에 치중한 거시경제 정책 운용의 한계

- 정부가 거시경제조절에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두 가지임.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도 두 가지 수단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균형예산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따라 재정정책은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왔고 이에 따라 거시경제조절 역할이 미미했음.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는 경기진작/과열예방, 물가안정, 자산가격조절 등 주문이 과다했음. 이런 우리의 현실은 근래 여러 선진경제들에서 통화정책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우려스러운 상황임.
 - 독립된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온 대표적인 경우인 미국은 현재 정책금리가 지난 해 이후 40여년만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음. 물론 경기의 추가경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자체가 경기 진작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음. 통화정

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10년 넘게 지속된 불황으로 여러 해에 걸쳐 제로 정책금리를 지속하고 있음. 투자와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부실채권 문제로 은행을 위시한 금융권의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통상적인 통화정책이 무력화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음.
- 유럽지역 역시 독특한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은 또 다른 의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신생 유로貨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물가안정유지를 최우선시하고 있어 EU경제가 경기부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예가 시사하는 점은 통화정책 일변도의 경기조절노력은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정책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것임. 따라서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조절 역할 제고는 중요한 과제임. 재정정책의 활성화는 재정 및 통화정책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조화로운 거시정책 운용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줄 것임.
- 한국에서는 그 동안 경기조절을 위한 거시경제 수단으로 거의 전적으로 통화정책에 의존해 왔음. 이런 통화정책의존 일변도 경향은 근래 한국은행이 법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장관 등 행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 공공연히 특정한 금리조절을 주문하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중앙은행 독립성침해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이런 주문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단순한 금리조절로 이룰 수 없는 성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지속된다면 사공이 많아 배가 산에 오르는 형국을 맞을 수 있음.

나. 재정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 경제부처 재편성 필요

- 2000년 말부터 수출이 크게 줄면서 우리 경제가 불황국면에 진입하게 되자 재정부 및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의 고위 정책담당자들이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재정정책의 팽창기조 전환을 여러 차례 천명. 하지만 2001년 이후 이루어진 예산집행결과를 보면 재정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을 뿐 만 아니라 연중 예산 지출 실적을 보면 조기집행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 정부는 예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차관이 주재하고 관련부처가 참가하는 예산집행확인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음.
- 지속적인 정부흑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세수추계에 대해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음을 반증함. 이는 예측력 부족에 기인한 과소평가나 지출억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세수를 축소 추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 이러한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는 경제부처의 재편성을 통해 거시경제 조절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편성, 집행기능과 거시경제정책 조절기능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부처 거대화가 우려된다면 지금 재 정부가 관할하는 금융시장관련 기능을 분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현 예산체계의 문제는 단적으로 일단 편성된 후 통제불능이라는 점임. 즉 정부가 거시경제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속도와 지출내용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함. 즉 필요시 예산과 재정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가 여타 부처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집행을 관장할

수 있어야 함.¹⁾

- 이런 체제가 부처의 독립성을 저하시키고 경제부처의 독주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조직은 부처나 관료의 고유권역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님. 국가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제일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함. 기업이 구조조정 하듯이 정부 조직도 기본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개편되어야 함.

1) 비슷한 지적 사항과 정부개편 논의는 본원의 2002년 5월 30일자 정책 보고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에서 찾아볼 수 있음.

부 록

주요경제통계

주요경제통계

|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 | | | | | | | |
|-----------------|-----------|------|-------|------------|------|-------|-------|-------|
| 연 월 | 경제성장률 | | 1인당 | 소비 | | 투자 | | |
| | GDP | 제조업 | GNI | 민간 | 정부 | 총고정투자 | 설비 | 건설 |
| | 전년동기대비(%) | | US \$ | 전년동기대비 (%) | | | | |
| 1999년 | 109 | 21.0 | 8,595 | 11.0 | 1.3 | 3.7 | 36.3 | -10.3 |
| 2000년 | 93 | 15.9 | 9,770 | 7.9 | 0.1 | 11.4 | 35.3 | -4.1 |
| 2001년 | 30 | 1.7 | 8,900 | 4.2 | 0.2 | -1.7 | -9.8 | 5.8 |
| 2000년 1/4 | 131 | 22.9 | - | 11.9 | 0.5 | 22.8 | 64.1 | -6.3 |
| 2/4 | 102 | 17.1 | - | 9.7 | 0.2 | 13.2 | 42.6 | -4.8 |
| 3/4 | 100 | 18.5 | - | 6.6 | -0.7 | 10.9 | 32.3 | -3.0 |
| 4/4 | 50 | 6.9 | - | 3.9 | 0.5 | 2.0 | 9.3 | -2.7 |
| 2001년 1/4 | 37 | 4.5 | - | 1.5 | -0.7 | -4.0 | -8.4 | 1.5 |
| 2/4 | 29 | 2.2 | - | 4.1 | -0.1 | -4.8 | -11.2 | 1.1 |
| 3/4 | 19 | -1.7 | - | 4.8 | 1.0 | -3.1 | -15.7 | 8.2 |
| 4/4 | 37 | 2.1 | - | 6.6 | 0.3 | 4.9 | -3.1 | 10.7 |
| 2002년 1/4 | 58 | 3.5 | - | 8.4 | 5.7 | 6.5 | 3.2 | 10.1 |
| 2/4 | 64 | 6.4 | - | 7.6 | 4.9 | 5.5 | 7.4 | 3.9 |
| 3/4 | 58 | 6.7 | - | 6.1 | 2.4 | 0.9 | 7.7 | -3.8 |

| 무역 · 국제수지 | | | | | | | | |
|-----------|---------|-----------|---------|-----------|-------|-------|--------------------------|----------|
| 연 월 | 무역 | | | | 국제수지 | | 외환보유액 ¹⁾ (기말) | 대미환율(기말) |
| | 수출(FOB) | | 수입(CIF) | | 상품 | 경상 | | |
| | 억 달러 | 전년동기대비(%) | 억 달러 | 전년동기대비(%) | 억 달러 | | 원/달러 | |
| 1999년 | 1,436.9 | 8.6 | 1,197.5 | 28.4 | 283.7 | 244.8 | 740.5 | 1,145.4 |
| 2000년 | 1,722.7 | 19.9 | 1,604.8 | 34.0 | 168.7 | 122.4 | 962.0 | 1,259.7 |
| 2001년 | 1,504.4 | -12.7 | 1,411.0 | -12.1 | 133.9 | 86.2 | 1,028.2 | 1,326.1 |
| 2001년 10월 | 120.9 | -20.7 | 115.1 | -18.4 | 6.6 | 3.0 | 1,004.7 | 1,296.1 |
| 11월 | 123.5 | -17.6 | 115.3 | -18.6 | 9.5 | 7.4 | 1,016.5 | 1,273.0 |
| 12월 | 119.1 | -20.4 | 113.0 | -14.2 | 5.7 | 0.2 | 1,028.2 | 1,326.1 |
| 2002년 1월 | 113.8 | -10.0 | 113.3 | -8.8 | 6.6 | 2.8 | 1,043.0 | 1,314.8 |
| 2월 | 110.3 | -17.4 | 104.6 | -17.8 | 6.6 | 3.8 | 1,050.9 | 1,327.7 |
| 3월 | 132.6 | -6.1 | 119.3 | -7.9 | 19.5 | 10.4 | 1,060.9 | 1,325.9 |
| 4월 | 131.9 | 8.8 | 125.5 | 12.0 | 11.3 | -0.1 | 1,076.6 | 1,294.0 |
| 5월 | 141.8 | 6.5 | 126.9 | 9.8 | 14.9 | 10.0 | 1,096.3 | 1,226.3 |
| 6월 | 129.0 | -0.3 | 119.2 | 1.7 | 17.4 | 7.9 | 1,124.4 | 1,201.3 |
| 7월 | 135.4 | 18.9 | 129.6 | 16.7 | 8.9 | -0.1 | 1,155.0 | 1,188.0 |
| 8월 | 139.7 | 18.7 | 128.5 | 13.4 | 10.1 | 1.5 | 1,165.4 | 1,201.9 |
| 9월 | 139.1 | 11.8 | 129.7 | 10.8 | 10.8 | 4.4 | 1,166.9 | 1,227.8 |
| 10월 | 151.1 | 25.0 | 138.2 | 20.1 | 20.9 | 13.8 | 1,170.0 | 1,221.6 |
| 11월 | 153.2 | 24.1 | 140.8 | 22.1 | - | - | 1,183.3 | 1,208.8 |

주: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전망과 정책과제

| 물가 · 실업 · 이자율 | | | | | | | | |
|---------------|------------------|----------|---------------|-------------|------------------|-------|------------|-------------------|
| 연 월 | 물가 ²⁾ | | 실업률 (계절조정) | 제조업 명목임금 | 통화 ³⁾ | | 회사채 수익률 | 주가지수 80.14=100 |
| | 생산자 | 소비자 | | | M2 | M3 | | |
| | 전년동기 대비(%) | | (%) | 전년동기 대비(%) | | 연% 평균 | 기간평균 | |
| 1999년 | -21(0.9) | 0.8(1.4) | 6.3 | 14.9 | 279 | 11.3 | 8.86 | 806.8 |
| 2000년 | 20(1.7) | 2.3(2.8) | 4.1 | 8.6 | 302 | 5.6 | 9.25 | 734.2 |
| 2001년 | 1.9(-0.7) | 4.1(3.2) | 4.7 | 5.8 | 157 | 9.6 | 7.04 | 572.8 |
| 2001년 10월 | 0.6 | 3.4 | 3.1(35) | 2.2 | 140 | 11.8 | 6.31 | 523.3 |
| 11월 | 0.1 | 3.4 | 3.2(35) | 5.5 | 134 | 11.4 | 6.79 | 604.9 |
| 12월 | -0.7 | 3.2 | 3.4(33) | 5.4 | 138 | 11.3 | 7.11 | 665.9 |
| 2002년 1월 | -0.6 | 2.6 | 3.7(32) | -12.8 | 126 | 11.6 | 7.07 | 738.9 |
| 2월 | -0.2 | 2.6 | 3.7(28) | 28.6 | 147 | 11.9 | 6.89 | 774.4 |
| 3월 | 0.0 | 2.3 | 3.4(29) | 11.2 | 162 | 12.9 | 7.05 | 864.7 |
| 4월 | 0.7 | 2.5 | 3.1(31) | 9.9 | 157 | 13.7 | 7.20 | 894.0 |
| 5월 | 1.5 | 3.0 | 2.9(31) | 13.0 | 145 | 13.7 | 7.07 | 842.2 |
| 6월 | 1.2 | 2.6 | 2.7(30) | 9.4 | 138 | 13.5 | 6.76 | 784.3 |
| 7월 | 0.9 | 2.1 | 2.7(30) | 15.2 | 123 | 13.0 | 6.59 | 753.7 |
| 8월 | 1.6 | 2.4 | 2.9(31) | 9.8 | 118 | 12.4 | 6.23 | 713.2 |
| 9월 | 2.2 | 3.1 | 2.5(28) | - | 121 | 12.4 | 6.06 | 703.2 |
| 10월 | 3.1 | 2.8 | 2.6(30) | - | 121 | 12.5 | 6.01 | 642.2 |
| 11월 | 4.0 | 3.5 | 2.7(30) | - | 126 | - | 5.90 | 679.7 |

주: 2) ()는 전년 말월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 산업활동 | | | | | | | | | | |
|------------|------|------------------|------------|-------------------------|-------------------------|------------|----------|----------|-------|------|
| 연 월 | 산업생산 | | 수요 관련지표 | | | | | | | |
| | 전 산업 | 평균 가동률 (%) | 도소매 판매액 | 소비재 출하 ⁴⁾ | 국내계 수주 ⁵⁾ | 설비투자 추계 | 건설 수주 | 건설 기성 | 건설 | |
| | | | | | | | | | 공공 | 민간 |
| 전년동기 대비(%) | | | | | | | | | | |
| 1999년 | 242 | 76.4 | 13.0 | 21.1 | 30.9 | 435 | 0.8 | 1.2 | 6.5 | -3.7 |
| 2000년 | 168 | 78.5 | 9.8 | 6.0 | 11.7 | 301 | 15.1 | -3.1 | -5.6 | -1.5 |
| 2001년 | 18 | 73.2 | 4.6 | 1.9 | -1.0 | -51 | 14.4 | 5.7 | 0.9 | 9.6 |
| 2001년 10월 | -14 | 72.4 | 4.8 | 3.4 | 4.3 | -43 | 30.2 | 6.3 | 3.6 | 8.0 |
| 11월 | 50 | 73.0 | 6.6 | -2.0 | -0.6 | 44 | 80.4 | 14.9 | 13.6 | 16.0 |
| 12월 | 33 | 71.8 | 8.1 | 1.4 | -19.6 | 56 | 64.7 | 16.3 | 10.4 | 21.4 |
| 2002년 1월 | 100 | 76.6 | 7.3 | 17.3 | 27.9 | 53 | 39.5 | 12.3 | -10.5 | 30.4 |
| 2월 | -27 | 76.3 | 8.1 | 6.2 | 14.5 | -06 | 41.9 | 14.8 | 3.7 | 22.7 |
| 3월 | 44 | 77.5 | 8.3 | 12.5 | 48.4 | 24 | 168.6 | 5.2 | -7.0 | 11.5 |
| 4월 | 74 | 77.7 | 7.8 | 5.3 | 21.9 | 23 | 31.3 | 2.0 | -11.7 | 10.3 |
| 5월 | 7.7 | 76.4 | 7.5 | 6.1 | -13.3 | 48 | 2.6 | -0.6 | -16.8 | 11.1 |
| 6월 | 53 | 73.3 | 4.1 | 1.4 | 26.4 | -74 | -1.1 | 10.0 | -3.6 | 19.4 |
| 7월 | 87 | 75.3 | 6.6 | 7.7 | 13.3 | -33 | 5.8 | 12.7 | 3.2 | 16.8 |
| 8월 | 85 | 77.0 | 6.0 | 8.9 | 43.8 | 1.1 | 65.0 | -4.9 | -20.9 | 5.1 |
| 9월 | 33 | 74.6 | 2.9 | 0.2 | 5.6 | 25 | -17.9 | -10.1 | -24.5 | -0.2 |
| 10월 | 127 | 75.6 | 7.0 | 10.6 | 31.1 | 14 | 19.8 | 6.4 | -14.7 | 19.5 |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2년 12월 27일

1판1쇄 발행/2002년 12월 29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2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SN 1229-5396

3,000원